

하천과 숲

홍명호 | 서울시 금천구 시흥2동 (djskjs68@hanmail.net)

우리나라는 3편이 바다인 나라이다. 이 바다는 대부분 하천과 연결되어 있고 지금은 4대강을 개발하고 있기도 하다.

일부 내륙지역을 제외하고 대부분의 생활권이 연안지역에 집중되어 있으며 인구의 절반 이상이 연안도시에 거주하고 있다. 이처럼 연안생태계에 미치는 국민들의 활동은 하천지역을 중심으로 연안역에 이르기까지 일정한 선(線)으로 발달하여 나타나고 있다. 도시의 오염물질은 하천을 통하여 바다로 흘러가고, 산림 개발에 의해 유출된 토양은 하천 수계를 통하여 상류에서 하류로, 하류에서 연안으로 흘러내리고 있다.

이처럼 산림과 하천, 그리고 연안은 경관 바탕 속에서 하나의 선과 면(面)의 순환 사이클로 형성돼 공존하고 있다. 그렇기 때문에 숲-하천-바다의 생태적 순환성은 어느 하나라도 상처를 입거나 부실할 경우 심각한 불균형을 초래하면서 우리 국토의 환경에 치명적인 훼손을 가져다 줄 수 있다.

이러한 관점에서 숲과 하천을 하나의 네트워크로 보고 보존 유지시켜야 하는 게 우리의 의무이기도 하다. 그 이유는 이 아름다운 산과 하천으로 된 강토를 고스란히 후대에 물려줘야 하기 때문이다.

그래서 하천을 말할 때 숲(산)의 중요성은 꼭 따라 다닌다. 특히나 산이 전체 국토의 7할을 차지하는 우리나라는 산을 얼마나 잘 가꾸고, 치산치수를 잘하느냐가 더욱 중요하다.

산이 중요한 이유는 산에 있는 나무가 우리 환경을 청정하게 해주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또 하나의 근본적인 이유는 산의 나무가 우리 하천으로 들어가는 물의 저장고 역할을 해주기 때문이다.

현재 우리나라에는 이미 조성된 인공림이 220만ha나 된는데 이 숲을 제대로 가꾸면 지구온난화 물질인 탄소배출량을 30% 이상 줄일 수 있다고 한다. 저탄소 녹색성장 시대에 이만한 역할을 해주는 산림의 중요성은 말로 다 할 필요가 없다.

또 숲이 머금을 수 있는 물의 양도 소양강댐 3개의 저수량과 맞먹는 60억톤이나 된다고 한다. 제대로 가꾸진 숲이 주는 혜택은 경제적인 가치로만 따져도 연간 50조원이 넘고 국민 한 사람당 100만원이 넘는 혜택을 돌려줄 수 있다니 그 효과가 대단함을 느낀다.

산림을 잘 가꾸어서 이산화탄소를 많이 흡수하게 되면 그만큼 지구온난화가 감소하고 기후변화도 억제할 수 있어서 홍수와 가뭄 같은 기상이변도 줄어들 수 있다는 건 요즘 유치원생도 아는 일이다. 울창한 산림 속에서 야생동물은 안전한 쉼터를 얻을 것이며, 국민들은 자연 경관미를 통해 정서적 안정을 구하고 대대손손 풍요로운 하천과 산림 자원의 혜택을 입을 것이다.

잘 조성된 수변림은 강의 범람과 침전을 억제하는 기능도 담당한다. 하천에 접한 숲이 어떻게 조성되어 있느냐에 따라 홍수와 가뭄을 약화시킬 수도 있고, 반대로 홍수의 피해를 더 크게 할 수도 있다. 그래서 인간의 힘으로 하천과 주변의 숲을 잘 조성하고 관리하는 일이 매우 중요하다.

물은 기후시스템에 따라 순환되므로 잘 가꾸어진 숲의 수원 함양 기능과 더불어 하천의 흐름을 원활하게 해주는 하천복원 공사를 통하여 우리나라의 하천을 항상 제 기능을 다할 수 있도록 보호해야 할 것이다. 그렇게 되면 아무리 심한 홍수와 가뭄이 찾아와도 끄떡없는 건강한 하천이 될 것이다. 🌍